



에 처음 왔다. 그때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바로 세계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저 벽 앞에 모여들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였다. 흰 벽을 그림으로 채우는 이들은 여전히 자신감에 넘쳐 있는 것 같다. 우리 그림책 작가들도 자기 그림을 알려려는 저런 열정을 본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실제 볼로냐 아동도서전 관람객 중 다수는 일러스트레이터 지망생들이었다. 포트폴리오를 들고 찾아온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주최측에서 미팅포인트메시지스(Meeting Point Messages) 코너를 하나 더 만들게 할 만큼 자신의 작업세계를 알리는 데 열성을 보여줬다. 또한 올해는 우리 작가 한병호 씨의 후배들이 찾아와 자신의 작업을 알리고 가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주필**

볼로냐 | 글·사진 김청연 기자

● 라가치상이란?

볼로냐 아동도서전의 꽃

이라 불릴 만한 상. 1996년부터 매해 수여하는 상으로 텍스트, 그림의 작품성부터 편집, 인쇄, 제본상태에 이르기까지 책의 전반적 수준을 심사해 상을 수여한다. 픽션과 논픽션 부문으로 나뉘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아동도서에는 지난해 픽션과 논픽션 부문 우수상을 최초로 받은 바 있다.

문화혁명의 상처 떠올리며 완성했습니다

라가치상 논픽션 부문 수상 앤지 장 Ange Zhang

interview



올해 라가치상 논픽션 부문 수상작은 유난히 출판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어린이책에선 언급되지 않았던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를 다루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작가가 중국인이면서 현재 캐나다 국적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도 이유가 됐다.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은

Ange Zhang 씨. 중국에서 캐나다로 망명한 그는 《Red and Yellow River》를 통해 자신의 조국인 중국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고 전한다.

“4년 전에 구상을 한 작품인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문화혁명을 다룬 어린이책이 없었던 터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출판사와 얘기를 나누던 중에 문화혁명 시기의 중국문화, 중국사회의 현실을 서양 어린이들에게 알려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 완성했지요.”

책은 문화혁명 시기를 살아가는 꼬마의 이야기로 중국의 거시적 정치와 분위기들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을 적극 추천했던 Antonio Faeti 심사위원장은 박해당하는 시민의 심리를 제대로 형상화한 책소개 포스터 한 장으로 더없는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인민당 전시물을 배경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이 서 있는 강렬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작가는 자신이 지어낸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젊은 시절 보고 듣고 직접 느꼈던 문화혁명 시기부터 이민생활을 하면서 느낀 생각들까지가 작품을 완성시킨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아버지 역시 중국 소설가셨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며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버리고 온 땅이지만 제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완성한 작품이지요.”

심사위원측은 이 책이 대립적인 이미지들, 즉 변화하는 중국과 변화하지 않는 중국, 압박하는 자와 압박당하는 자, 변화된 인물, 변화하지 않는 인물들을 한 공간 안에 잘 공존시켜놓았다고 칭찬했다. 또한 지극히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구사하는 그림언어는 더없이 순수하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주필**

볼로냐 | 취재·사진 김청연 기자